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인도남아시아 권역

인도에서의 환경 일기

박미나

2022년 7월 28일은 올해 1년 치 탄소 자정 능력을 모두 소모한 날이다. 하반기는 미래인들의 탄소 자정 능력을 끌어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 씁쓸한 소식을 먼 타국 인도에서 듣게 되니 마음이 착잡하여 나의 좁은 시각이 조금이나마 고국의 환경 캠페인에 도움이 될까 글을 시작해본다.

우선 환경에 대한 내 관심의 시작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환경일기’였다. 환경일기에는 매일 환경을 위해 한 행동들을 적어야 하는 것으로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그 나이에 두꺼운 약 1cm의 두께에 달하는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은 끝은 보지 못하였으나 일기장이 맘에 들어서였던 지 뭐든 환경과 관련 지어 생각하는 오늘의 나를 보면 그 목적은 충분히 이룬 셈이다. 일생에 두드러지는 환경운동은 하지 않았으나 소심한 잠재적 환경운동가가 되었으니 말이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환경운동가가 되었으면 탄소 자정일을 하루 더 늦출 수 있었을까 하는 무의미한 생각을 해보며 인도에서 생존(?)하고 있다.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소망하였을 때 인도를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자가 주재원 의향을 물어봤을 때 거부감 또한 크지 않았다. 주위의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도행을 택한 것은 내 무의식 중 데이터가 긍정 지표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면 댈 수 없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불편하고 더럽고, 고향의 맛은 노력해야만 느낄 수 있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등 비관론자 입장에선 고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를 덮을 만한 최고의 장점이라면 '못 보던 자극'이다. 언어, 음식, 교통, 풍경 모든 게 신선한 자극이다. 처음 온 올해 7월, 오도가도 못 하며 극에 달했던 경계가 조금씩 풀어지니 '내가 별세계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다하다 쓰레기봉투까지 신기하다.



인도의 쓰레기 봉투. 분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20L 종량제 봉투 꼭꼭 눌러 공기머리 끝으로 아무 지게 매던 내 나라 쓰레기봉투는 없다. 애기 손톱으로 잠깐 스쳐도 흐르르 찢어지는 이 나라 쓰레기봉투를 보며 '뭐여, 싸서 버리라는 거여, 넣어서 버리라는 거여' 되도 않는 충청도식 사투리로 느긋하게 욕이 나온다. 그런데 잠재적 환경운동가 20년 째밥으로 봉투 재질을 보건대 흠에 잘 찌는 봉투다. 이 나라가 환경 좀 생각한다, 칭찬을 하였던니 남편이 옆에서 봉투 질이 낮은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어이 없어 한다. 어쨌든 그 이후로 몇 번 더 산 쓰레기봉투의 내구성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짹짹' 봉투에 비하면 나의 적응이 한참 멀었다.

비닐, 하니 또 생각나는 것이 우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비닐봉지 우유이다. 이를 입국 전에 미리 알았는데 거부감이 매우 컸다. 특히나 유아가 있는 집이라 먹어도 될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가격만한 비싼 우유를 사 먹지만 날이 갈수록 봉지우유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더 맛있는지 이웃에 놀러간 딸내미는 우유 두 잔을 얻어먹고 왔다. 급할 때는 내구성이 심하게 걱정되는 봉지우유를 사 먹고는 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뿌듯해 하며.

인도에 온 지 3개월도 안된 내가 또 하나 보며 괜찮다 싶은 친환경 아이템은 전기 차단 스위치이다. 벽에 붙어 있는 콘센트 옆에 스위치가 있어 'on'으로 해야만 전기가 흐른다. 성격 급한 한국인 중 한 명이었던 나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짜증이 났지만 그 사용법에 익숙해지니 콘센트를 꽂아



비닐에 담겨져 있는 인도 마트의 우유들

놓고 스위치만 켜다 켜다 하며 감탄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꽂아 두기만 해서 사용되는 '대기전력'의 양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스위치가 있다면 대기전력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사용할 때마다 전원을 켜야 하는 인도의 콘센트

이곳에는 Zomato라는 배달 플랫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앱 슬로건은 '100% Plastic Neutral Deliveries'로 재생용지로 만든 종이 포장, 옵션에도 없는 식기 생략 등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이다. 물론 플라스틱 용기로 배달이 오기도 하지만 옵션에도 없는 친환경 포장용기가 기본임을 감안하면 한국과 비교할 때 동일 인구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더 적을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장용기 사용량이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식기를 가져와 포장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이 늘고 있다. Zomato의 기업방향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는 아직 상하수도 시설이 사회 인프라로 구축되지 않았다. 나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정화 펌프를 돌려 물을 공급한다. 물이 가끔씩 단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다행히 내가 사는 곳은 물탱크 청소 기간 빼고는 단수가 된 적이 없다. 또한 인도 특성상 뒷물을 위한 미니 샤워기가 변기 옆에 설치돼 있다. 그래서인지 변기에 채워지는 물의 양이 극도로 적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큼 변기의 반이 물로 채워지는 곳이 없다. 물 부족으로 인한 결과인지, 화장실문화에서 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변기에서의 물 낭비는 없는 게 확실하다.

사실 인구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도의 자원 소모량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낭비해 봤자 따라갈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인도에 갓 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감히 인도의 환경운동을 우리나라와 비

교해 평가할 수 있을까.

인도(India)와 환경(Environment)이라는 분야에 문외한인 내가 봐도 이곳은 환경 선진국이 아니다. 아직 분리수거는 철저히 되지 않고 있고,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고, 거리 한복판에 쓰레기 더미들이 뒹굴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쓰레기차가 거리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Dry/Wet으로 쓰레기를 구분해 버리는 등 이곳도 나름의 체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곳의 ‘다른’ 환경적 노력을 배워 발전시키면 좀 더 우리가 사는 곳이 나아지지 않겠냐는 의도에서이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三人行, 必有我師焉)’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못한 것은 반면교사 삼아, 비슷한 것은 경쟁 삼아, 잘한 것은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는 사치품과 같다. 심히 여유 있을 때 사는 명품백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필수재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향후 20년 안에 크나큰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고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나의 자식 세대들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 이미 그쪽 분야 전문가들은 암울한 미래에 대해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딩크(DINK)족이 되었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환경 관련 글이 그러하듯이 나도 비슷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

야 한다. 어제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
포칼립스를 하루 더 늦출 수 있게 되겠지.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